

전남 배드민턴 미래 스타들 속속 커간다

이용대배에서 화순고 복식 금·단체전 은·단식 동메달 전남기술과학고 단식서 은 1·동 1...기량 늘며 성장세

전남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이끌어갈 미래 스타들이 성장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화순고와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팀이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학교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2, 동 2개를 따냈다.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화순(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화순고는 여자고등부 개인복식에서 정다연·공여진 조가 금메달, 단체전에서 은메달, 개인단식에서 정다연이 동메달을 땀다. 전남기술과학고는 남자고등부 개인 단식에서 정민제, 박성주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고 정다연·공여진(이상 2년)은 결승에서 최경진·김나현(창덕여고)를 만나 세트스코어 2-0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64강부터 결승까지 1세트

밖에 내주지 않고 우승했다.

여고부 단체전에서도 화순고는 김천여고, 포천고, 범서고, 영덕고 등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충주여고를 만나 3-0으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고는 결승까지 1세트만을 내주고 완승했으나 충주여고에 한세트도 패하지 못하고 좌절했다.

정다연은 여고부 개인단식에서 무실세트로 준결승에 올랐으나 이서진(충주여고)을 만나 세트스코어 2-0으로 패해 동메달을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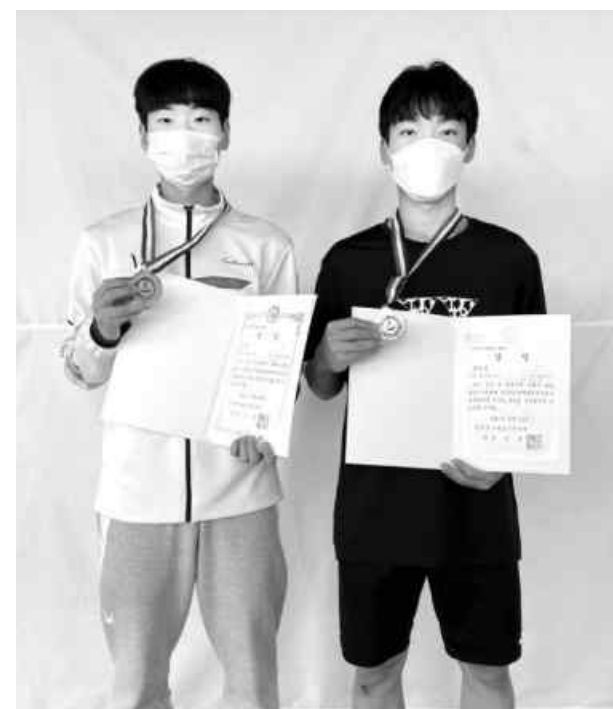
남자부 개인단식에서는 정민제(2년), 박성주(1년)가 출전해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박성주는 준결승에서 최평강(매원고)에 패해 동메달, 정민제는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순고 배드민턴팀 정다연(왼쪽부터), 공여진, 이채은, 정은지.



전남기술과학고 박성주(왼쪽), 정민제.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대 태권도 전국대회 남녀 나란히 종합우승



광주대 태권도부 선수들이 '제44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회장기대회 남녀 단체전도 우승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 태권도부가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개최된 제44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남자부 -58kg 최정인(1년)과 -63kg 송성현

(1년)이 금메달을 따냈다. -80kg 고영훈(1년)은 은메달, +87kg 서선원(3년) 등 5명은 각 체급별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도 메달을 휩쓸었다. -62kg 김유정(2년)과 -73kg 조하은(2년), +73kg 강민아(1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9kg 정예진(3년)은 은메달, -46kg 유정민(2년)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대는 남녀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대

학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김태경(2년) 등 6명으로 팀을 이룬 남자B조와 김가영(2년) 등 6명으로 구성된 여자팀이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현준(2년) 등 6명의 남자A조는 은메달을 받았다.

강경도 감독은 남자최우수지도자상, 전지희 코치는 여자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남자하키 '아시아 챔피언'

종료 직전 극적 동점골...페널티 슈아웃서 일본 꺾고 우승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4쿼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린 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제6회 아시아 챔피언스트로피 대회 정상에 올랐다.

신석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3-3으로 비긴 뒤 페널티 슈아웃에서 4-2로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하키 강국들이 모여 치르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역대 이 대회 최고 성적은 2016년 대회 4위였다.

또 이달 초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제6회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트로피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1-2로 패해 준우승한 아픔도 깨끗이 설욕했다.

1쿼터 정준우의 선제 득점으로 앞선 한국은 2쿼터 일본에 2골을 내줬고, 3쿼터에도 기리시타 요시키에게 한 골을 더 허용했다.

1-3으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던 우리나라는 4쿼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페널티 코너 상황에서 장종현이 한 골을 만회해 2-3을 만들었다.

이후 경기 종료 직전까지 한 골 차를 좁히지 못하던 우리나라는 종료 13초를 남기고 페널티 코너 기회를 맞았으나 이때 장종현의 슈팅을 일본 골키퍼가 선방하며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거쳐 다시 페널티 코너가 선언됐고, 6초를 남기고 시도한 마지막 페널티 코너 기회에서 장종현의 슈팅이 그대로 일본 골문 안으로 향하면서 극적으로 3-3 동점이 됐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남은 시간은 2초 정도였고, 4쿼터가 그대로 끝났다.

패배 직전 동점골을 터뜨린 우리나라는 페널티 슈아웃에서 골키퍼 김재현이 일본 1번과 3번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 한국 선수들은 네 명 모두 득점에 성공해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노메달, 2016년과 2020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 최근 국제무대에서 부진했던 한국 남자하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2022년 황제우 아시안게임 전광을 밝게 했다. 10골을 넣은 장종현이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 선수들이 2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챔피언스트로피 하키대회 결승 일본과 경기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이승훈·김보름·김민석 베이징행

차민규·정재원·김민선도 승선 한국 올림픽 출전권 13장 확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다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IHQ)을 비롯해 차민규(의정부시청), 김민석(성남시청), 김보름(강원도청)이 올림픽 쿼터 획득에 성공했다.

23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발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별 출전권 획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자 500m 2장, 1000m 2장, 1500m 1장, 매스스타트 2장, 팀 추월 1장을 획득했다. 여자부에선 500m 1장, 1000m 2장, 매스스타

트 2장을 땀다.

다만 남자부 5000m와 1만m, 여자부 1500m, 3000m, 5000m, 팀 추월은 쿼터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은 중·단거리 종목과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할 전망이다.

남자 500m에선 세계랭킹 8위 김준호(강원도청)와 11위 차민규가 출전한다.

김준호는 지난달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500m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월드컵 1-4차 대회 기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선 34초188의 개인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차민규는 평창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리스트

다. 남자 1000m에선 차민규(세계랭킹 10위)와 김민석(성남시청·17위)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민석은 남자 1000m보다 주 종목인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평창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이승훈(5위)과 정재원(서울시청·4위)은 베이징에서도 나란히 땀다.

평창에선 정재원이 이승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금메달 획득을 도왔지만, 베이징에서는 처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재원은 월드컵 1-4차 대회 6차례 매스스타트 경기 중 5번을 이승훈보다 먼저 들어왔다.

여자부에선 김민선(의정부시청)이 500m와 1000m에서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현영(성남시청·19위)은 여자 1000m에서 땀다.

평창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김보름(8위)과 박지우(강원도청·9위)는 베이징올림픽 매스스타트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3관 매트릭스: 리저렉션
- 4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7관 씨네캐슬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8관 씨네캐슬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엔칸토: 마법의 세계,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연애 빠진 로맨스, 유체이탈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2022년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